

‘시대의 등불’ 신영복 교수 타계

•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 연루 20년 복역 • 1988년 출소 후 성공회대 교수 역임 • 옥중 집필 저서·서예작품 발표 • 2014년까지 강단 • 2016년 1월 15일 암투병 끝 타계



늘 처음처럼... 시대의 아픔 아우른 참지식인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겨울저녁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의 형태입니다.” (신영복 ‘쇠귀’ 중에서)

지난 15일 타계한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는 굴곡의 시대를 울곧게 살았던 시대의 스승이었다. 참 지식인이자 양심의 사표였던 그가 우리 사회에 끼쳤던 영향은 적지 않다. 많은 이들은 그가 남긴 글과 어록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를 되새기곤 한다.

사색과 성찰로 주옥같은 명언 남겨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등 명저 집필
사후 저작 판매량 3일간 13배 증가

그는 1941년 부친의 고향인 밀양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을 고향에서 보낸 그는 부산상고에 진학하고, 이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다.

1966년부터는 육군사관학교 경제학과 교관으로 재직하며 경제학을 가르친다. 그러나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연루 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지금의 국가정보원)가 그에게 반국가단체 혐의를 씌워 20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 윤희시킨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숲과 회유가 있었지만 그는 결코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다.

1988년 출소 이후 성공회대에서 정치경제학, 사회과학입문,

중국고전강독 등을 강의했으며 2006년 정년퇴임 후에는 석좌교수 자격으로 2014년까지 강의를 한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수감’과 ‘교육’이라는 두 키워드로 집약될 만큼 단조롭지만 울림이 있는 삶이었다. 특히 수감생활을 하면서 체득한 성찰과 지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의 이름을 각인시켰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시대를 초월한 명저로 자리잡았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중략)모로 누워 곁잠을 자야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사람을 단지 37°C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그는 너무 더운 여름철에는 옆 사람의 체온마저 증으로 느껴진다고 고백한다. 이성적으로 미움을 통제하지 않으면 자기혐오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겨울이 오면 옆 사람에 대한 증오보다 따뜻한 사랑이 자리하게 된다고 한다. 비록 현실이 어둡고 절망적일지라도 인내하며 희망을 꿈꾸어야 하는 이유가 그때문이다.

신 교수의 주옥같은 어록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부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재단하지 않는 ‘인간에 대한 예의’와 ‘사랑’에 초점을 둔다. 그의 말을 되새기다 보면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새삼 인식하게 된다.

“삶은 사람의 준말입니다. ‘사람’의 분자와 분모를 약분하면 ‘삶’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이성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개인적으로 ‘사람’이 되고 사회적으로 ‘인간’이 됩니다.”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와 철학자뿐만 아니라 서예로도 일가를 이뤘다. 옥살이 중 교도소에서 익힌 서예로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위안을 줬다. 소주 ‘처음처럼’의 글씨체가 그의 것이다. 또한 가수 안치환이 불러 유명해졌던 ‘처음처럼’이라는 노래가 신영복의 시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겨울저녁에도 마



치/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신 교수는 ‘서예와 나’라는 글을 통해 이렇게 밝힌 바 있다. “4·19혁명 직후 대학을 중심으로 우리 것에 대한 자각이 싹트던 시절이 있었다”며 “내가 서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쏟게 되는 것은 역시 20여 년의 옥중생활에서였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옥’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사유와 삶을 살 것을 권한다. 자신만의 이기심과 욕망에서 벗어나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라고 역설한다. 한편 신 교수 별세 이후 그의 저작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일일평균 약 80여권 판매되었던 저서들이 15일 이후 3일간 판매량이 직전 3일보다 1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스24에 따르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과 ‘담론’이 17일 국내도서 종합 일별 베스트셀러 순위 1, 2위에 올랐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끼 있는 청춘 모여라 ‘극단 청춘’ 아마추어 단원 모집

지난 1989년 창단 후 ‘페르조나’ 등 창작극을 꾸준히 올리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극단 청춘(대표 오설균)이 아마추어 극단 단원을 모집한다.

청춘은 지난 2011년부터 직장인 극단 ‘우연’과 청소년 극단 ‘청연’을 만들어 매년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우연’은 20~30대 직장인 남녀를 대상으로 단원을 모집하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모임을 진행한다. 회비는 3개월에 5만 원이다.

일반극, 창작극, 뮤지컬 등 연 2~3회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청연’은 15~18세 극에 관심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단원을 모집한다. 회비는 월 5000원이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모임을 진행한다.

두 극단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청춘’ 카페에서 원서를 내려



받아 메일(cctheater@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마감은 오는 31일까지다. 문의 062-430-52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亞문화전당, 대학생 기자단 모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내외 한국 대학(원)생과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제9기 ACC기자단을 모집한다.

ACC(Asia Culture Center, 국립아시아문화전당)기자단은 글, 사진, 영상 분야별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취재팀, 해외 거주 한국 대학(원)생 및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유학생으로 구성될 해외팀, 기자단 관련 취재물과 홍보물을 편집·디자인하는 디자인팀, 그리고 기존 활동했던 기자단0B들이 소속된 명예팀으로 구성된다.

월 20만원 이내의 활동비와 문화전당 현장 취재 시 교통비와 숙박비가 지원되며, 문화전당의 일부 프로그램 이용시 직원 할인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우수 기자들에게는 아시아 3개국에서 취재와 홍보 활동을 펼칠 기회가 주어진다. 마감은 오는 2월1일까지다. 문의 062-601-4066. /윤영기자 penfoot@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종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북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